



인터베트-쉐링푸라우, 엠에스디동물약품으로 출범

역량 강화를 통한 견실한 경영으로 국내 동물약품 시장을 선도

세계 및 국내 동물약품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인터베트와 메리알의 통합작업이 지난 1년여 동안의 작업 끝에 끝내 무산됐다.

본사로부터 통합작업 중단이라는 뜻밖의 소식이 날라온 것은 올해 3월. 지난해부터 진행되어 온 두 기업의 통합작업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기에 국내 지사들 또한 통합회사 대표 선출을 비롯 사무소 통합, 직원 이동 등의 작업이 올해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였다.

하지만 이번 통합 무산으로 본사는 물론 국내 지사까지도 원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이후 인터베트-쉐링푸라우는 지난 6월 29일 전세계적으로 엠에스디동물약품(MSD Animal Health)으로 상호를 변경, 출범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내 회사 법인명 인터베트코리아(주)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인터베트코리아(주)는 지난 7월 12일 엠에스디동물약품 출범을 기념하여 서울 본사에서 전 직원과 함께 축하행사를 가졌다. 이날 서승원 대표이사를 만나 그간 일련의 일들에 대한 경과와 앞으로의 경영 방침에 대해 들어보았다.

Q. 먼저 엠에스디동물약품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무난히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던 인터베트-쉐링푸라우와 메리알과의 통합이 무산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요?

A. 지난해 인터베트의 모회사인 엠에스디(머크)사와 메리알의 모회사인 사노피-아벤티스사

는 공동투자 방식으로 두 회사를 통합한 초대형 동물약품 회사를 설립키로 합의하고 지난 1년여간 통합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두 회사의 통합작업을 위한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의 검토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독과점에 따른 새로 정비할 제품의 품목과 금액이 너무 커 당초 두 회사가 합쳤을 때보다 시너지가 없다고 판단, 결국 최근 본사로부터 통합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결정은 내부적 안정을 고려한 본사의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상호변경은 2009년 3월 엠에스디(머크)사가 인터베트-쉐링푸라우를 인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인체분야에서는 이미 엠에스디 회사명을 써 왔지만, 동물약품 분야는 그간의 인터베트-쉐링푸라우 브랜드를 감안해 회사명 변경을 미뤄왔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 인터베트와 메리알의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이후, 동물약품 분야 회사명 변경을 추진해 왔고, 지난 6월 29일 전세계적으로 엠에스디동물약품으로 회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인터베트코리아 역시 '한국엠에스디동물약품'의 출범을 기념한 행사를 지난 7월에 가졌습니다. 하지만 회사 법인명인 인터베트코리아(주)는 당분간 유지될 것입니다.



MSD Animal Health



서승원 대표이사

따라서 회사명이 변경되더라도 시스템의 변화는 없습니다. 고객들은 기존에 접촉했던 그대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Q. 엠에스디동물약품 출범에 따른 향후 회사 운영방안은 어떠한지요?

A. 이미 의약품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엠에스디(머크)사의 브랜드를 통해 특히 R&D에 강한 인터베트-쉐링푸라우의 이미지가 더해져 엠에스디동물약품은 더욱더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엠에스디동물약품의 출범은 동물약품 사업에 초점을 맞춰 업계 최고가 되기 위한 엠에스디 본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인 만큼 이를 계기로 날로 다양해지는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혁신적인 동물약품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통합적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엠에스디동물약품의 양계관련 주력제품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올해 신제품 출시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A. 엠에스디동물약품은 국내 최초의 가금 티푸스 예방백신인 노빌리스 SG9R, 후대병아리에서 발생될 수 있는 클레임을 예방하기 위한 노빌리스 Reo+IB+G+ND, 국내 유일의 닭 전염성 빈혈증 예방 백신인 노빌리스 CAV P4, 감보로병 예방백신(노빌리스 감보로 228E 및 D78), 뉴캐슬병과 전염성 기관지염 합제 백신인 노빌리스 Ma5+Clone30 등 육계, 산란계, 종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백신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양계산업 전반에 걸쳐 큰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는 뉴모바이러스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내 최초의 조류 뉴모바이러스 예방백신인 노빌리스 RT-inac를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계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을 등록·진행 중에 있습니다.

엠에스디동물약품의 기존 양계제품과 함께 양계산업에서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생산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2011년 7월 1일부터 사료내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엠에스디동물약품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A. 사료내 항생제 사용 전면 금지는 양계산업이 진일보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하지만 양계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들에게는 세균성 질병의 대두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합니다.

엠에스디동물약품에서는 사료내 항생제 사용 전면 금지 이후 예상되는 피해에서 농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양계 팀원들의 농장 기술지원 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항생제 사용 금지 이후 발병증가가 예상되는 괴사성 장염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괴사성 장염 예방백신을 등록 중에 있습니다. 이는 종계에 접종하여 모체이행항체로 괴사성장염균 독소에 대한 항체를 후대병아리로 전달하여 괴사성 장염을 예방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필드용 엔라마이신의 생산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유기산제제를 시판 중에 있습니다.

엠에스디동물약품은 이렇듯 괴사성 장염을 비롯한 세균성 질병 예방 백신들을 등록·검토 중에 있으며 항생제 대체제 개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전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글 | 김효진 기자(hj@chicken.or.kr)